

침묵하던 정세균 “야당 죽이기” 반발 ‘한명숙 5만불’ 수사 진실게임 양상

민주 “丁측근 2만불 수수 시인” 보도 법적 대응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한 전 총리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 광영육 전 대한통운 사장의 관계에서 나타난 각종 의혹의 진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등은 광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 총리와 정 대표, 광 씨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시 정 장관 등과 함께한 오찬이 끝난 뒤 나타난 각종 의혹의 진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과 일부 언론의 주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광 전 사장이 대한통운에 재직하던 1998년 한 전 총리가 운영하는 여성단체의 행사 경비를 후원하면서 처음 한 전 총리를 알게 된 이후 각별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005년 6월말 대한통운 사장에서 물러난 광씨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물색하던 2006년 11월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지원하라는 당시 정 대표가 장관으로 있던 산업자원부 고위공무원의 전화 등을 받던 와중에 한 전 총리로부터 2006년 12월 20일 오찬을

초대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또 광씨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시 정 장관 등과 함께한 오찬이 끝난 뒤 나타난 참석자들이 먼저 나간 후 준비해 간 미화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든 봉투 2개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씨는 석탄공사 사장 후보 1순위로 추천받았고 임명되지 못하고 2007년 3월 초순 한국전력 임원에게서 남동발전 사장에 지원하라는 연락을 받고 3월 말에 사장으로 선임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 언론은 이 과정에서 정 대표의 산자부장관 시절 한 측근이 광 전 사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와 정 대표 측의 반박=한 전 총리 측은 오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세세한 정황은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 위해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는 24일 “이제껏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로 성탄절을 맞지만 하나님께 제게 주신 시련의 의미를 묵상하고 기도도 새겨보고 있다”며 “처음에는 제 스스로 자부하는 ‘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기소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의 힘’을 믿고 당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시련의 의미를 생각하며 당당해 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간의 ‘침묵모드’를 깨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찬 기자회견에서 “나는 전혀 거리낄 것도 없고 쟁기는 게 없다”며 “산자부 장관 재임시 (광 전 사장이 응모했던) 석탄공사 심사도 안 했고 추천도 내가 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에서 인사 얘기가 오갔느냐는 질문에는 “기억

이 없다. 1년에 800번 정도 밖에서 밥을 먹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다 만나는 게 아니겠느냐”며 “한 전 총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당 죽이기’로 규정, 이날 오후 청와대 정경길 비서실장과 이귀남 법무장관을 항의방문하고 ‘측근 수수설’을 보도한 해당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등 전면대응을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점점 못찾은 ‘4대강 예산’

여야 ‘수공 800억’ 삭감 입장차

조만간 4자회담 열어 막판 절충

여야가 24일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이틀째 ‘2+2 회담’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협상대표인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 협상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삭감 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자보전비용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박 의원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장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김 의장이 입장하자 “청와대에서 보파리를 갖고 왔는지 먼저 말하라”며 압박했다. 이에 김 의장은 “청와대를 또 얘기하는데, 수차례 말했지만 우

리 당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두 사람은 전날 회담에서 제시된 민주당의 4대강에 설치될 보의 개수와 규모, 준설량의 하향 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김 의장은 “국토해양부 및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수량, 유속 등을 정확히 고려한 것이므로 (보와 준설을)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2차례 협상이 끝돌자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박 의원은 추후 회신을 주기로 했다.

여야가 조만간 원내대표를 포함한 ‘4자 회담’을 열어 막판 대타협에 나설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협상 결렬에 대비, 준예산 집행을 검토하는 한편 자체 예산 수정안 작업에도 바차를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성탄절인 25일에도 예산안 증액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B, 정치권 ‘예산안 처리’ 고강도 압박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 편성 대책을 주문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가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에 대비, 새해 첫 날이자 휴일인 내년 1월1일에 비상 임시국무회의 개최를 잠정적으로 준비하는 등 사전에 모든 대책을 마련해놓으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등 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 준예산이 편성되면 각종 민생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국회와 정치권을 정

면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은 우선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하는 의지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준예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편성될 수도 있다는 위기상황을 언급함으로써 정치권에 예산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여기에 준예산 편성 사태가 현실화될 일말의 가능성에 대비,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예산안 심의 과국이 근본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있다는 점을 벗어나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檢, 공성진의원 불구속 기소키로

수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4일 오전 0시30분께 17시간 이상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스테이트실서 골프장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공 의원을 소환해 골프장 회장 공모죄와 후원업체 등에서 수익원을 수

수한 명목과 불법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공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의원은 조사가 끝나고 귀가하면서 “충분히 소명했다. 검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확실히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 의원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연차 돈 수수’ 박진의원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선고

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작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올해 6월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79+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고시학원에 있다! www.hanbitgosi.co.kr

79+ 공무원 합격 특강 공무원 합격은 '역사' 한빛고시학원에다

만개특강 79+ 통합반 개설 강좌

한빛고시의 합격시스템

1. 1:1 맞춤 학습 2. 1:1 맞춤 학습 3. 1:1 맞춤 학습

한빛고시학원

장수바다장어

100% 신선

장어밥 장어장식

장수바다장어 100% 신선

장어밥 장어장식

장수바다장어 100% 신선

장어밥 장어장식

남성 헤어 기능장비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585-1000 「사람세상」

가발

초슬림!!

각 품 50만원~

귀여운 분위기 안착을 도와주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673-5858, 673-6822

문의: 011-680-0955